

**on the NET**  
Network Intelligence for Leading Networkers

인터뷰

지사 위한 단일 어플라이언스 환경 구성

올킷터어는 10년간 QoS, 비저빌리티, WAN 최적화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압축 등의 고속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윈도우 CIF 가속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아이세이퍼를 새롭게 발표했다.

이 제품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QoS, 압축, 비저빌리티, 캐시 등의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DNS, DHCP, 마이크로소프트 도메인 컨트롤러, 프린트 서버 등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통합 구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사 환경을 위한 단일 어플라이언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패킷터어는 지난 1년간 압축과 가속에 중점을 두고 WAN 최적화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아이세이퍼는 이같은 노력의 결과다. 이 제품은 은행, 정부, 통신, 교육,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점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많은 WAN 최적화 솔루션 업체들이 있지만, 패킷터어의 솔루션이 이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바로 비저빌리티다. 따라서 이부분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이 한국에서도 정부 기관에서 이 제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티브 하우스 | 패킷터어 프로덕트 매니저먼트 디렉터

인터뷰

중국의 TD-SCDMA 전략은 실수



던컨 클라크 | bda 사장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TDS-CDMA만 고집하고 있지만 차이나모바일 등의 업체들은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상용화를 준비중인 TD-SCDMA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 중국은 TD-SCDMA 외에도 AVS, WAPI, RFID, IGRS, CMMB 등의 독자 표준을 따르고 있다.

TD-SCDMA는 ITU가 지정한 3G 표준이지만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실제로 TD-SCDMA를 고집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다르다. 중국에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네트웍 등의 유선통신업체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의 이동통신업체가 있다. 유선통신업체들은 급부상하는 모바일 시장에 진출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업체들은 자국에서만 사용되는 TD-SCDMA 기술보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WCDMA, EV-DO 등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한정된 TD-SCDMA 시장에서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 WCDMA 진출을 두고 중국 정부의 강등을 겪고 있으며, 다른 통신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TD-SCDMA는 휴대폰 단말기가 크고 발열이 심할뿐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으며, 단말기 업체들도 TD-SCDMA 단말기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인터뷰

아태지역 대상 캐리어 이더넷 표준화 인증 사업 전개

캐리어 이더넷은 LAN 환경을 위해 개발된 이더넷을 통신업체 서비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관리 능력, QoS 등이 기존의 이더넷에 비해 향상된 것을 말한다.

캐리어 이더넷은 메트릭 액세스와 글로벌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가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에게 상호 연결성 향상과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같은 캐리어 이더넷에서는 단순성과 확장성이 중요한 이유이며, 전세계적인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제네바에서 대규모 상호호환성 테스트가 진행된 바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같은 캐리어 이더넷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중요한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수많은 통신업체와 장비업체들이 표준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아태지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물론 한국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향후 한국 통신업체들의 서비스 개발에 MEF 인증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목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IPTV, 모바일 이더넷을 하나로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캐리어 이더넷 액세스 기술의 하나인 미드밴드 이더넷에 대한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다. 이미 많은 통신업체와 장비업체들이 MEF에서 미드밴드 이더넷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넌 첸 | MEF 회장